

#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네트워크 거주 실태분석

A Study on the Network Residence of College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 |                     |   |
|---------------------|---|
| 박영미<br>Park Youngmi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br>석사과정(제1저자)<br>Master Candidate of Housing Environment,<br>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onkuk Univ.<br>(Primary Author)<br>(zeromi3@naver.com) |
| 최정민<br>Choi Jungmin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부교수(교신저자)<br>Professor,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br>Konkuk Univ.(Corresponding Author)<br>(jmchoi@konkuk.ac.kr)  |

## 목 차

- I.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 2. 연구방법
- II. 이론적 고찰
  - 1. 용어 정의
  - 2.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 3. 분거 관련 국외 동향
- III.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분거현황 분석
  - 1. 대학생의 분거와 거주환경
  - 2. 설문조사결과: 기본 통계
  - 3. 설문조사결과: 심층 분석
  - 4. 소결: 네트워크 거주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 IV. 결론

※ 본 논문은 2011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I.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가족 및 주거 형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인가구가 24.3%로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1인가구가 2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는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머지않아 ‘나홀로 가족’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1가족이 1가구, 즉 “1가족=1가구”라는 등식이 성립하였다. 다시 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가족은 한 집에서 모여 살고 자녀가 장성하면 출가하여 분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1가족 2가구 이상, 즉 가족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족이 점점 공간적으로 떨어져 분가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대도시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는 유지하면서 나홀로 삶을 꾸려가는 분가가족이 늘어났다. 2011년 8월에 발표된 서울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1인가구(24.4%)며, 가구유형에서는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줄고, ‘부부’, ‘한부모가족’, ‘나홀로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하나의 가구(household) 또는 가구 속의 가족(family)만을 보아서는 혈연 중심의 단위 가족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주생활이나 유대관계성, 상호부조시스템 등이 어떻게 성립하고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가(本家: 원가구)와 분가

족과의 공간상 분화된 가족관계를 주거측면에서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주(Network Residence)’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거주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로, 김정균(1995) 등이 저출산, 고령화, 급속한 산업화로 대도시로 떠나는 농어촌 가족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해 온 개념이다.

지금까지 인구, 주택, 조세 등 각종 통계자료나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은 주로 3~4인 표준가구였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가구의 세대원이 줄고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1~2인 가구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급속히 늘어난 1~2인 가구는 주택공급 부족을 야기시켰고, 주택시장의 불안은 표준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관련 연구나 대응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교육과 직업 등에 따라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해진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가족이라는 근저에 깔린 유대감은 일정하게 유지한 채 본가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생활하지만, 본가와 가족 특유의 정신적·물리적 교류를 영위하는 네트워크 거주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분가가족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가족 및 아동, 심리, 가정 분야 등 주로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1~2인 주거공간에 대한 계획, 소비자특성 등에 대한 연구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가족(invisible

1) 서울시 통계웹진 50호(<http://stat.seoul.go.kr/jsp/WWS8/WWS8S8123.jsp#>).

family)이라는 틀 안에서 분거가족과 본가와와의 관계를 주생활 측면에서 연결(network)하여, 요구되는 주거서비스와 가족 관계성을 고찰하려는 국내 연구는 부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분거가족과 본가와와의 관계성, ② 분산가족 간의 물리적·정신적 현황 교류, ③ 주거지의 공간적 분화현황, ④ 분거가족의 가족인식 범위와 공간적 거주범위와의 관계 등이다.

실제 분거가족은 주거비 및 생활비, 가구 간 교류 시 이동비용 등 가족이 함께 거주할 때와 비교하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부부간 분거 및 부모와 미혼 자녀 간 장기분거는 가족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 가족 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고, 관련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분거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자녀의 교육이나 사회초년생의 직장 등 가족 구성원이 점점 비자발적 분거로 내몰리게 되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거가족의 공간적 분화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분거가족의 네트워크 관계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문헌고찰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부분에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산 거주 관련 최근의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부분에서

는 분거가족의 출현배경과 특성, 전개과정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분거가족 중에서, 교육상 본가를 떠나 학교 주위로 거주지를 옮기는 학생, 그 중에서도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sup>2)</sup>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숙사 거주 대학생은 대부분 본가와 멀리 떨어져 나름대로 독립적 주거생활을 영위함과 더불어, 결혼 전까지 향후 본격적으로 나홀로 가족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11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대상지는 서울 소재 K대 민자기숙사에 거주하는 미혼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K대 기숙사는 국내 최초의 민간자본 BTO 방식으로 건립하여, 2006년 9월에 개관하였다. 건물은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12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구성은 1인실 182실, 장애우실 18실, 2인실 1,435실의 총 1,635실로, 총 수용인원은 3,070명이다. 건물은 보안경비시스템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며, 유닛별로 책상, 침대, 의자, 책장, 옷장, 신발장, 냉장고(2인실은 층별 공동 사용) 등이 빌트인 되어 있고, 욕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 또한 구비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도서대여점, 편의점, 미용실, 빨래방, 문구점, 패밀리 레스토랑, 분식점 등이 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고, 관할 기숙사 행정실과 연계하여 기숙사 홈페이지 및 기숙사 거주자 메일을 통해 온라인설문지를 수거하였는데, 최종 유효 응답자 수는 411명이다.

2) 대학생의 주거특성은 경제적 자유권(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으며, 행동이 자유로워 소유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따라서 잦은 주거 이동성을 갖고 있는데(하미경, 2011), K대 기숙사 거주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주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입사 시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음. 실제 K대 민자기숙사는 시설이 좋아 입사하려는 학생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계약기간 이후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주거유형으로 옮기게 되는 대학생이 많음. 자취생활이나 본가에서 통학, 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를 순환하게 되며, 본 연구는 그 주거유형 중 하나인 기숙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이들은 향후 독립된 성인으로서 분거가족의 첫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II. 이론적 고찰

### 1. 용어 정의

「민법」에 따르면 ‘가족’은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된 자로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며, 「건강가정기본법」<sup>3)</sup>에 따르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인구주택총조사<sup>4)</sup>에서 정의하는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분가’라 함은 본래 살던 집으로,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사는 집이다. 다른 말로 거점주택(primary home)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직장, 생계, 라이프스타일 등에 의해 개인의 주된 주생활이 영위되는 곳으로, 사용빈도 및 점유시간, 위상 등에 있어서 중심이 되며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되는 주택”으로 정의한다. 대립되는 개념으로 활동주택(secondary home)이 있는데, 이는 “거점주택과 떨어진 곳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주택”으로, 분거지의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최정민, 2010)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분가’란 가족의 한 구성원이 결혼 따위로 살림을 차려 나가는 것으로, 호적법상 분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분거’는 법

적 개념 없이 개인적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호적의 법적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분산가족’은 공간적으로 분산해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용어이며, 유사한 용어인 ‘분거가족’은 가족이 공간적으로 분산해 있지만,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유대관계의 관점에서 ‘분거가족’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가족, 사회·문화 부분과 공간, 물리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거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크게 가족관계 및 심리분석과 자녀교육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족관계 및 심리분석에 관한 연구는 장기분거가족, 특히 기러기가족<sup>6)</sup>에 대한 것이 많은데, 가족 구성원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에 나가 자녀와 함께 있는 기러기엄마에 대한 경험 및 심리 연구(김양호, 2009; 조은, 2004; 김선희, 2007)나 본국에 남아 있는 기러기아빠의 경험 및 심리에 관한 연구(김양희, 2004; 김주현, 2010; 엄명용, 2002; 이두휴, 2008), 부부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조은

3) 건강가정기본법(<http://likms.assembly.go.kr/law>).

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http://www.census.go.kr/>).

5) ‘분거가구’는 분가(거점주택)를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가구(household)를 말한다.

6) ‘기러기가족’은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가족 상황을 나타내는 신조어로 ‘기러기아빠’라는 용어에서 기인함(김양희, 2004). 기러기아빠란 경제적인 이유로 아빠는 한국에 남아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동반 유학하는 가족이 크게 늘면서 매스컴을 통해 생겨난 신조어임. 기러기는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회목을 상징하는 철새로, 비록 떨어져 지내지만 가족에 하나만으로 혼자 사는 수고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외로움과 싸우는 가장을 기러기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음. 기러기가족은 학술적으로 엄명용(2002)의 연구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와 아내를 해외로 보내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위해 국내에 남아 생활하는 가족을 지칭함. 국립국어원 「2002년 신어」 보고서에 ‘기러기아빠’라는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2003년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 ‘기러기가족’이라는 용어를 수록하였음. 또한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 ‘Girugi’라는 용어로 기러기가족과 관련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소개된 바 있음(2005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표 1\_분거가족 관련 국내 선행연구

가족 관계 및 사회 심리	가족 관계 및 사회 심리	장기 분거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양희. 2004)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최양숙. 2006)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김선희. 2007)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기제(최양숙. 2008)
		장기 분거가족에 대한 일 연구-기러기가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김양호. 2009)
		기러기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김주현. 2010)
		기러기가족의 분거와 순차적 이민을 통한 재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변화 연구(조은숙. 2010)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엄명용. 2002)	
	자녀 교육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조은. 2004)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한유미. 2004)
조기유학, 기러기가족과 관련하여 자녀 교육문제와 대책(유희정 외. 2004)		
물리적 측정	기러기아빠의 교육적 희망과 갈등 연구(이두휴. 2008)	
	부모와 분거 자녀 간의 상호 연락실태에 관한 연구(박광모. 1983)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 및 분거 경험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차승은. 1999)	
	도시탈출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구동희. 2004)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곽인숙. 2003)	
자녀의 취침 및 학습 행위 패턴으로 본 기러기가족의 주생활 특성 연구(이현희. 2010)		

숙. 2010; 최양숙. 2006; 최양숙. 2008)가 있다. 초기의 연구는 가족 내 비자발적인 분거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였으나 근래에 이르러 분거가족을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 혹은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갈등 및 경제문제 등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고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하나의 대안 가족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김양희. 2004; 유희정 외. 2005).

자녀교육 측면에서는 양육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분석한 연구(한유미. 2004; 이두휴. 2008)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자녀는 주로 청소년기 이전의 자녀들로 한정되어 있다. 실제 청년기(성인 자녀)에는 대학진학 및 결혼 전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분거가족이 발생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분거자녀와 부모와의 연락 실태분석(박광모. 1983), 자녀의 분거경험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차승은. 1999)가 있다. 2010년 인구총조사를 보면, 가구주 연령계층별 가구원 수에서 30대 미만 가구주인 1인가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분거가족의 상당수가 청년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심층적 고찰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공간적·물리적 측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광모(1983)는 부모와 분거 자녀 간의 연락실태를 거리상 떨어진 정도,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횟수를 일정기간 측정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방문, 전화, 편지 등 예전의 연락방식을 측정하였기에 급속히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는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거형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시의 세컨드홈 여부와 거주양식 및 통근·통학 양식에 따라 통근·통학 연계형, 거주분열형, 통근·통학분리형으로 분거형태를 나누기도 하였다(구동희. 2004).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였으며, 전원생활을 위한 세컨드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분거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주말부부가족 33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주지와 부거주지의 결정요인, 거주유형, 심리적 비용 및 보상 등을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서는(곽인숙, 2003) ‘주(主)거주지’를 주중에 주말부부 가족 중 더 많은 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으로, ‘부(副)거주지’를 주중에 혼자 또는 적은 수의 가족이 생활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주생활 관점에서 주말부부의 실태를 심층 고찰하였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연구대상이 주로 교수 등 특정 직업군에 맞춰져 있어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러기가족 자녀의 취침 및 학습 행위 패턴을 통해 주거공간을 분석한 연구에서는(이현희, 2010), 실제 이전에 살던 주택유형과 해외 분거 이후의 주택유형을 비교하고 취침 및 학습 행위에 대해 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거 전후에 있어 주거공간에서 자녀의 행위에 있어 의미 있는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기러기가족의 심리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주거공간을 매개로 분거라는 이벤트 전후에 나타나는 행위 특성을 고찰하고 있으나, 수집된 사례가 소수여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분거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가족 및 사회심리적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가족과 구성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분거하고 있는지, 상호 간의 교류나 지원활동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국내연구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최근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공간 계획 등 하드웨어 중심의 연구들과는 달리, 그 이면에 잠재된 거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산거주 실태를 대학생 1인가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 3. 분거 관련 국외 동향

#### 1) 유럽 및 미국: 분거가족 관련 문헌고찰

Van der Klis(2005, 2008)는 30쌍의 분거부부 및 분거가족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가와 분거하는 집에 대한 의미, 분거 주택의 선호위치, 2~4년 후의 동일 분거가족의 변화 및 심리분석 등을 연구하였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거주공간의 느낌을 Space(순수하게 기능적이고 수단적), Place(잘 알고 있으며 친근함), Home(친밀하고 사람 느낌이 남)으로 구분했으며, 분거주택은 이상적인 집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분거주택은 가족 공동이 생활하는 본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기차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한다고 나타났다. 분거가족의 변화추이를 위해 일정 기간 후 동일 가족을 다시 접촉하면서 기대치 않은 병이나 해고 등이 분거생활에 변화를 준다고 분석하였다. Van der Klis의 연구는 주로 부부 중심(맞벌이, 홀벌이)의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가족유형을 대상으로 본가와 분거주택 간의 물리적 주택비교, 활동 패턴 등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Smith(1998)에 의하면 성인 자녀와 고령부모 간의 공간적으로 분리된 거리가 상호교류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이라 하였으며, 이는 고령세대를 위한 주거 계획 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Stedman(2006)은 세컨드홈에 거주기간에 따라 집에 대한 애착도와 의미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짧게 빈번히 오가는 거주지는 환경의 질이나 일상에서의 탈출을 중시하며, 연 단위로 길게 거주하는 사람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2) 유럽 및 미국: LAT

유럽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LAT(Living Apart Together)족은 말 그대로 떨어져 함께 사는 커플로, 별거와는 달리 각자의 거처를 두고 살지만 여전히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자식도 함께 돌보며 주말 또는 주중에 정기적으로 만난다. LAT족은 각자 취미가 다르거나 생활 패턴이 다른 부부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따로 생활하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하기 전에 소유했던 각자의 집을 경제적인 이유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LAT족은 서류상 부부로 함께 사는, 하나의 집이 아닌 각자의 집을 소유함으로써 다주택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각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주택 중 하나를 팔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LAT족이 많은 유럽에서는 인구는 비록 감소하고 있지만 주택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Rosencil(2006)에 따르면,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인 LAT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따로 사는 것(gladly apart)으로 삶의 방식, 가사분업 등의 이유로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성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둘째로는 직업, 가족 부양, 법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경우(regretfully apart)이며, 셋째로 아직 미래를 결정하지 않거나 결혼하기 전의 커플인 경우(undecidedly apart)다. LAT 방식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이거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LAT족은 1970년대 스칸디나비아에서 크게 붐을

이었고, 네덜란드는 현재 12만 5천 명 이상이 LAT족이며, Haskey(2005)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약 200만 명이 LAT족 관계에 있다고 한다. 더불어 영국의 LAT족은 dating LATs(계속 관계를 진행하기엔 준비가 덜 된 커플), partner LATs(관계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 커플), cohabiting(함께 살고 있는 커플), single(파트너 없이 아무 관계도 맺지 않은 상태)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미국 또한 LAT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Strohm(2009)은 결혼하지 않거나 동거하는 미국 성인의 3분의 1은 LAT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 개인을 과거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싱글로 분류했을 것이라며 LAT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주문하였다(Strohm, 2009).

이런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 주말부부의 맞벌이 문제, 가장의 직장 문제로 비자발적 LAT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개인의 기호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각방을 쓰는 부부의 경우도 많으며,<sup>7)</sup> 최근 혼인신고를 연기하는 등 결혼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sup>8)</sup>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해 보면, 네트워크 거주 측면에서 LAT족을 조명해 보는 것도 의의가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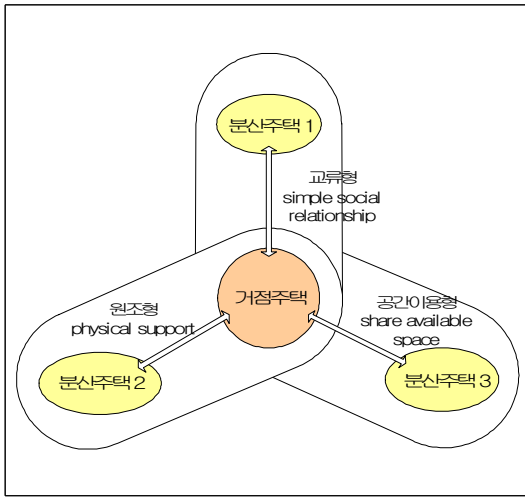
## 3) 일본: 네트워크 거주, 근거(近居), 인거(隣居)

金貞均(2000)은 네트워크 거주를 “하나의 확대가족이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을 소유하고, 그 확대 가족 전체의 생활 상황(life stage)에 따라 상호기능을 보완하며, 밀접한 교류를 도모하면서 필요에 따라 각 가

7) 우리 부부가 남편 방, 아내 방 따로 쓰는 이유·각방, 부부의 독립선언? 미즈네일(<http://www.miznaeil.com/index.asp>). [2011.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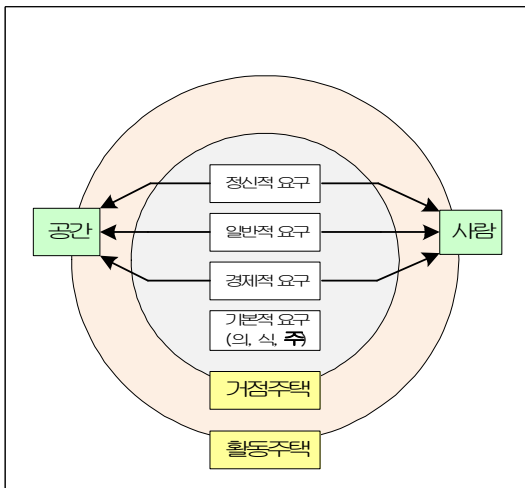
8) 박혜림. 2010. “혼인신고? 일단은 살아보고 할래요”. 주간동아 제759호. pp50-51.

그림 1\_ 네트워크 주거 개념도



자료: 金貞均. 2000. p35.

그림 2\_ 네트워크 거주에서의 상호 생활요구 지원 개념



자료: 近江 隆 위. 1995. p162.

구 간 세컨드하우스를 확보해 상호이용 및 커뮤니케이션을 높이는 거주형태”라고 정의하였다(<그림 1> 참조). 일본에서는 실제 분산가족의 네트워크 거주에 관한 공간적 분포에 대한 대규모의 광역적 통계수치는 발견할 수 없었고, 선행연구에서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네트워크 거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내용으로는 가족의 현재 분거에 따른 유형분류, 경제적 지

원, 공간적 분산 정도, 교류현황, 가족인식범위 등으로 구성된다. 赤木 외(2008)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관계에 관계없이 피설문자 자신이 가족으로서 간주하는 범위로 설정하고, 이를 ‘가족의식범위’로 지칭하여 분석하였다. 일본 동북 6개 지역과 관동의 치바시(千葉市), 우쓰노미야시(宇都宮市)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70~80% 이상이 가족의식범위에 복수의 가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 사람이 의식하는 것은 평균 2~3호의 주택, 7~8인의 가족을 연상하고, 이런 관점에서 가족의 분산거주는 일본 내 널리 침투해 있으며, 의식되는 가족의 범위 또한 핵가족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분산가족은 각 가구 사이에 상호협조 또는 보완적 상호관계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 가족으로 인식하는 분산가족의 범위는 이전에 동거하였으나 현재는 별거하고 있는 사람(미혼/기혼의 자녀세대, 단신 부임한 남편 또는 아내)을 포함하여 현재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친족(부부의 부모, 형제자매 등)까지 폭넓다(金貞均. 2000).

네트워크 거주를 성립시키는 생활요구를 보면 (<그림 2> 참조), 의식주 하위에서 상위 요구의 4단계 위계관계에서 ① 기본요구, ② 원조요구(가사/경제), ③ 공동요구(일반적), ④ 정신요구(심적)로 개념화하였다. 하위 요구인 기본요구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요구로, 개별 주거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외부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충족시킨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원조(援助)요구, 정신요구의 충족에 있어 네트워크 거주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近江隆. 1995).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거학 관점에서 분거가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주택정책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한편 근거(近居)·인거(隣居)라는 거주형태에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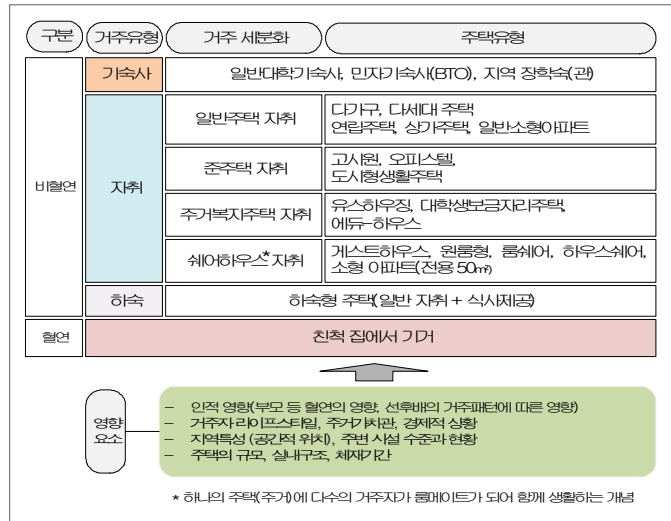
목하고 있다. 근거란 “부모와 자녀가 분리하여 각자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한편,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사는 거주형태”를 뜻하며(平山洋介, 2011), 인거는 “친족관계를 가진 사람끼리 인접하여 주호(住戶: Unit)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大月敏雄, 2011). 근거나 인거 모두 하나의 주택으로 완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1가족 1주택이라 할지라도 상호 인접하여 살아가면서 상부상조하는 협동적 형태로 마을이나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50년에는 독거노인 비율이 약 40%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일본에서, 이에 대한 주거복지적 측면에서 지원(support) 문제해결책으로 근거·인거를 제시하는데, 근거·인거가 늘어나면 가구 간 원조관계가 촉진된다. 자녀가구가 맞벌이를 할 경우 육아 및 가사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가구로부터 개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거·인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고령의 부모와 맞벌이 자녀 상호 간의 개호를 지원하는 유력한 사회시스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 III.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분거현황 분석

#### 1. 대학생의 분거와 거주환경

분거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이에 대응하는 주택의 유형을 개략 분류해보면 <그림 3>과 같다. 우선 분거 대학생의 거주지는 비혈연과 혈연으로 구분된다. 비혈연 분거는 다시 기숙사, 자취, 하숙의 형태로 세분

그림 3\_ 분거대학생의 거주 및 주택유형 분류



화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형태인 자취는 다시 일반주택 자취, 준주택 자취, 주거복지주택 자취, 셰어하우스 자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거 주거와 주택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경제적 요소와 인적영향 요소, 개인의 상황 및 라이프스타일 요소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대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소 못지않게 인적영향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 2. 설문조사결과: 기본 통계

본 연구 대상 기숙사 거주 대학생 응답자의 인구 속성 및 분거(거점주택) 현황을 <표 2>에 정리하였다.

##### 1) 인적현황

<표 2>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남학생(41.5%)보다 여학생(58.5%) 비율이 약간 높으며, 평균 나이는 22.1세다. 출신지역(본가위치) 현황을 보면 부산, 울산, 대구를 포함한 경상지역이 37%(152명)로 가장 많고, 경기 23%(91명), 전

라 17%(70명), 충청 16%(65명), 강원 6%(23명), 제주 1% (4명)순이다. 응답자의 현 분거지인 기숙사와 동일 생활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 또한 4% 정도 포함되어 있다. 본가의 평균 동거가족 수는 3.02명으로, 설문 응답자를 포함하면 4인가족이며 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및 자신으로 구성된다.

2) 주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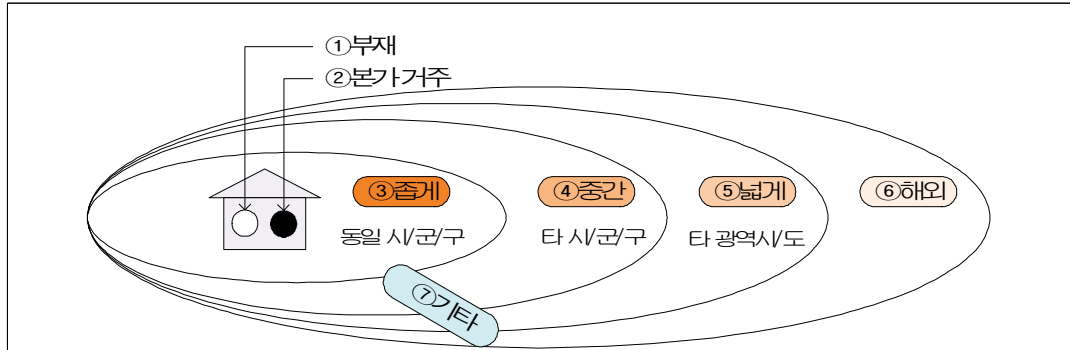
<표 2>의 B를 보면 출신지역인 본가의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84%)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유형으로는 아파트(72%), 단독주택/다가구(21%) 순이었다. 분거 전후로 본가주택에 자신의 공간(방) 유무를 비

표 2\_ 응답자의 주거현황 및 교류관계 특성(N= 411)

		활동주택(기숙사)		거점주택(본가)	
A. 인적사항	성별	남자(41.5%) / 여자(58.5%)		위치	경기(23%) / 강원(6%) / 경상(37%) 전라(17%) / 충청(16%) / 제주(1%)
	나이	평균 22.1세		동거 가족 수	평균 3.02명
B. 주거현황	기숙사 이주동기	통학불편(70%) / 가족권유(8%) 경제적 이유(7%) / 공부집중(6%)		주택 소유	자가(84%) / 임차(15%)
	거주상황	평균 분거기간 37.9개월		주택 유형	아파트(72%) / 단독주택·다가구(21%)
	이주이유	취직, 진학 등 상황변화(50%) / 집세부담(21%)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동(17%) / 프라이버시(9%)		별도 주택 유무	유(18%) / 무(82%)
	이주 시 고려점	집세(44%) / 주택 내부시설(20%) 교통여건(13%) / 주택 외부환경(12%)		자신의 전용방 유무	분거 전: 유(90%) / 무(9%) 분거 후: 유(79%) / 무(20%)
C. 교류관계	물질적	비용	등록금 학기 평균 393만 원 / 기숙사 임차료 월 평균 42만 6,750원 / 생활비(교통, 세탁, 식대 등) 월 평균 31만 원 / 기타(여유, 교제) 월평균 17만 원		
		임대료 평가	매우 부담(32%) / 약간 부담(56%) / 보통(7%) /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1%)		
		지원내용	음식이나 지역 특산품(27%) / 의류·침구류(59%) / 기타(현금, 생필품)(13%)		
	정신적	교류대상	가족(23%) / 기숙사 룸메이트(3%) / 지인 및 친구(69%) / 기타(없음 등)(4%)		
		교류빈도 (외박)	혈연(친인척): 거의 매주(4%) / 월 1~2회(13%) / 연 1~2회(14%)		
			지인(친구): 거의 매주(8%) / 월 1~2회(36%) / 연 1~2회(24%)		
		방문빈도 (본가)	거의 매주(9%) / 월 1~2회(30%) / 몇 개월에 1~2회(42%) / 방학 때마다(8%) / 연 1~2회(9%)		
		방문목적	금전문제로 인해(1%) / 가족과의 교류를 위해(91%) / 필요물품 가지러(4%)		
	통신방법	음성통화: 거의 매일(28%) / 주 몇 회(58%) / 월 몇 회(12%) / 거의 안 함(1%)			
		문자메시지: 거의 매일(17%) / 주 몇 회(48%) / 월 몇 회(15%) / 거의 안 함(18%)			

주: 각 항목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기된 항목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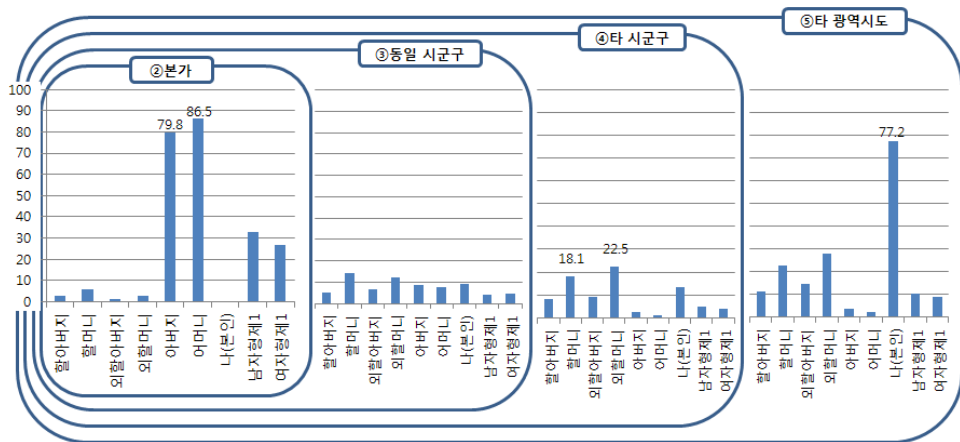
표 3\_ 가족 구성원별 공간적 분거현황



a. 가족구성원과 공간적 분거현황 설문항목

구분	① 부재	② 본가	③ 동일 시군구	④ 타 시군구	⑤ 타 광역시도	⑥ 국외 및 군대
할아버지	72.9	2.7	4.9	8.4	11.1	0
할머니	38.9	5.9	14.1	18.1	22.8	0.2
외할아버지	68.3	1.5	6.4	9.2	14.6	0
외할머니	34.2	2.7	12.4	22.5	27.7	0.5
아버지	2.9	79.8	8.9	2.5	3.7	2.2
어머니	0.7	86.5	7.4	1.2	2	2.2
나(본인)	0	0	9.4	13.4	77.2	0
남자형제1	39.9	32.7	4.2	5	10.1	8.1
남자형제2	94.5	2.8	0.8	0.5	0.3	1.3
남자형제3	96.0	1.8	0.8	0.5	1	0
여자형제1	53.1	26.6	4.5	3.7	8.9	3.2
여자형제2	89.9	4.5	2.3	0.8	1.8	0.8
여자형제3	95.0	2	1	0.5	0.5	1

b. 가족 구성원의 분거실태 (N= 411, %)



c. 공간적 위계관계에 따른 가족구성원 분거실태

교해 본 결과, 분거 전의 90%에서 분거 후에 79%로 떨어졌다. 비록 자녀가 학업을 위해 본가를 떠남에 따라 자녀공간이 축소되더라도 그 비율은 미미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거주 기숙사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통학불편(70%)이 가장 많았으며, 분거거주 기간은 평균 약 3년(37.9개월)이었다. 향후 기숙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목적으로는 대학생인 만큼 취직 및 진학으로 인한 상황변화(55%)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집세부담(21%),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의 이동(17%)을 꼽았다. 이주 시 고려할 요인으로 집세(44%), 주택 내부시설(20%), 교통여건(13%) 순으로 꼽았으며, 집세라는 경제적 요인이 대학생들 이주에 있어 가장 큰 영향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현재 가족구성원의 공간적 분거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짐작할 수 있듯이 부모가 본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어머니(86.5%)가 아버지(79.8%)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우 사망비율이 높는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분포를 비교하면, 외조부모가 친조부모보다 약 5% 정도 사망률이나 부재율이 낮다. 그 이유는 통상 현재 대학생 부모 중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생존 조부모의 공간적 분리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타 광역시도가 타 시군구보다 구성 비율이 높아 본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외조부모보다 친조부모가 본가에 함께 사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남녀형제의 분포에서는 남녀형제 모두 본가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남자형제의 본가 거주 비율이 약 6%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타 광역시도에 나가 사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 또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타 광역시도에 분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교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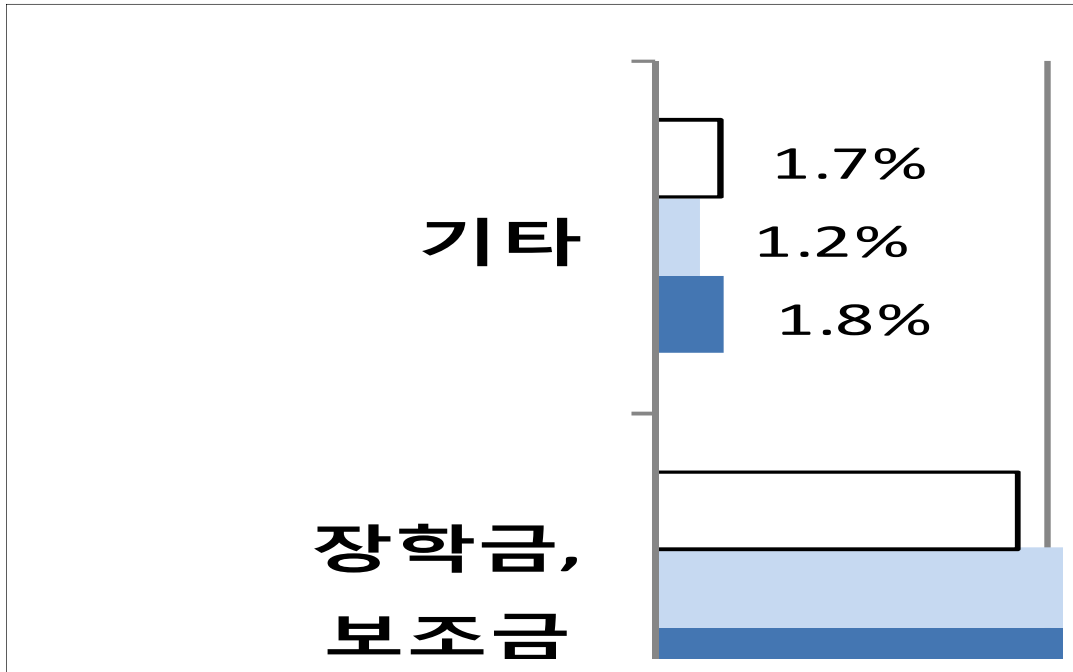
본가와외의 교류현황도 크게 물질적 관계와 정신적 관계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먼저 물질적 관계란 대학생이 본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표 2>의 C와 같다.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기타 교체비로 구성되는데, 설문결과 K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393만 원, 기숙사 1개월 임차료는 평균 42만 6,750원<sup>9)</sup> 생활비(교통비, 세탁비, 식대비 등) 평균 31만 원, 기타(여유비 및 친구교제비 등) 17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기 등록금을 월별로 나누어 모든 지출항목을 합산하면,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약 156만 원<sup>10)</sup>이 되고, 연간으로 보면 1,870만 원에 해당한다. <그림 4>의 비용마련 방법을 보면, 등록금은 주로 부모나 친척 등 혈연으로부터의 도움이 가장 크며(80.7%), 다음으로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고(44.9%), 학자금 대출 등 제도금융대출(38.1%)도 상당한 비율을 이룬다. 그런데 주거비는 혈연으로부터의 도움이 등록금 보조 비율보다 더 높은 93.2%를 이루어, 거의 부모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생활비의 경우 부모를 위시한 혈연

9) 2011년 8월 홈페이지([http://kulhouse.konkuk.ac.kr/home/index\\_01.asp](http://kulhouse.konkuk.ac.kr/home/index_01.asp))에 공시된 기숙사비용 참고

10) 이는 K대 기숙사 거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연구대상인 민자기숙사는 일반 자취나 하숙에 비해 관리비 등 주거비 지출이 높은 편으로(민자 사업 기숙사는 학교에서 별도의 채원과 투자가 없으며, 기숙사건립 및 관리비용이 학생에게 100% 전가되기 때문), 기숙사 거주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과 경제적 여건이 다를 수 있음. 2011년 3월에 한 포털사이트에서 전국 대학생 3,637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대학생 생활비조사’를 실시한 결과(조현아, 2011. “대학생 1명당 월평균 생활비 42만 원… 지난해보다 늘어”. 뉴시스 3월 23일자), 기숙사 거주 및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방세, 관리비)는 월 평균 30만 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금을 제외한 평균생활비는 58만 7천 원으로 집계되었음.

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80.4%), 여타 항목에 비해 알아보았는데, 지인의 집에서 월 1~2회(36%), 지인

그림 4\_ 대학생의 각종 비용 조달방법



자신이 직접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2>의 C의 정신적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로 교류하는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지인 및 친구(69%)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가족(23%), 기타(4%)의 순으로 나타나 혈연보다는 지인, 친구와 더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적인 교류에서 '기타'로 응답한 사람들은 직접 대상자를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은 '없다' 또는 '본인'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의 '나 홀로 청년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단편적인 교류만 있을 뿐 혼자만의 시간과 격리된 공간에서의 생활에 익숙한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의 일면을 반증한다.

외박을 할 경우 어디서 얼마나 머무는지에 대해

의 집에서 연 1~2회(24%), 혈연의 친인척 집에서 연 1~2회(14%), 혈연의 친인척 집에서 월 1~2회(13%)의 순을 보였다. 짐작컨대, 부담이 덜한 친구나 지인의 집에서는 과제물 준비 등으로 임시적, 충동적 외박을 주로 하는 데 비해, 친인척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의를 갖춘 방문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생활 중 본가 방문 빈도 및 목적을 알아보면, 수개월에 1~2회의 빈도(42%)로 주로 가족과의 친목도모(91%)를 위해 다녀온다고 하였다. 교류 수단으로는 주로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에 의존하며, 빈도는 주당 여러 번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신이 눈에 띄는데, 이는 IT기술 발달과 더불어 문자전송 방법이 부모세대에게도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첨단 IT기술의 발전은 네트워크 거주에 있어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5\_ 가족인식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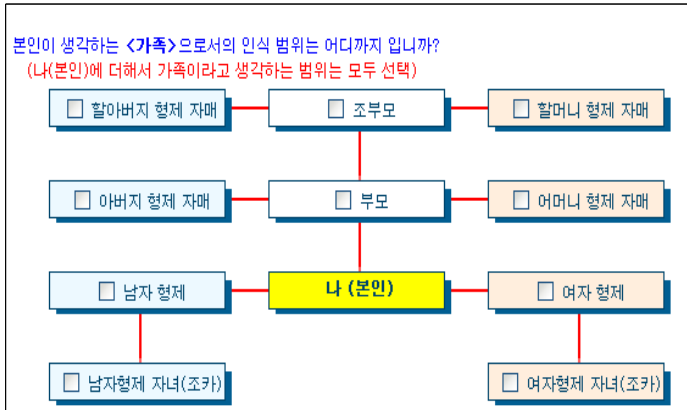
3. 설문조사결과: 심층 분석

1) 가족인식범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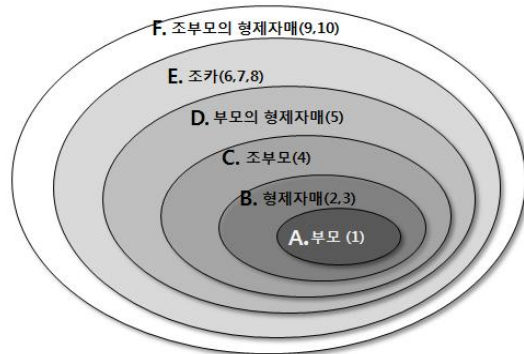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식범위를 표시하게 한 결과(<그림 5-a>), 개략적인 인식범위의 경계는 부모(A), 형제자매(B), 조부모(C), 부모의 형제(D), 조카(E), 조부모의 형제(F) 순으로 분류된다(<그림 5-b>, <그림 5-c>).

또한 실제 본가 가족구성과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를 비교해 보면(<그림 6-a>, <그림 6-b>), 실제 가족구성의 인원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등으로 3~4인인데 비해, 가족인식범위는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을지라도 가족이라는 혈연관계가 공간적 거리를 초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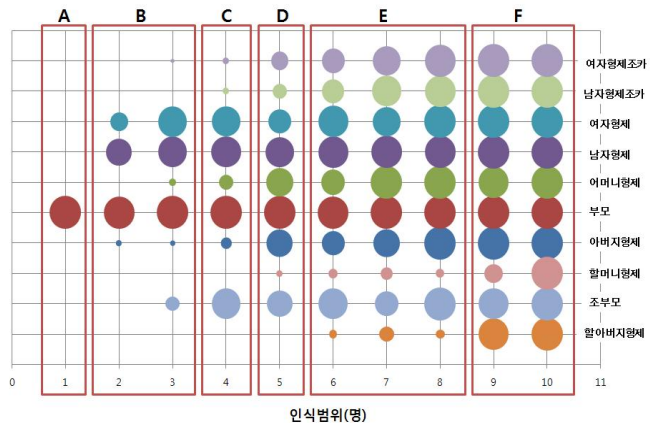
<그림 7>과 같이 성별에 따른 가족인식범위를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62.5%)의 경우 가족범위를 1명(부모)이라고만 생각하는 비율이 여학생(37.5%)에 비해 높고, 2~6명의 중간은 낮으며, 7~9명에서 다시 높아진다. 이는 족보 및 가족의 대를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중심이 되는 남성의 입장에서 가까운 직계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a. 가족 인식범위 조사 설문항목



b. 가족인식범위의 포괄관계 (인식범위: 명)



c. 가족인식 구성원별 인식범위 포함 비율

※ 가족인식 구성원별(수직축) 인원수 증가(수평축)에 따른 가족인식범위 비율

그림 6\_ 가족구성현황과 인식범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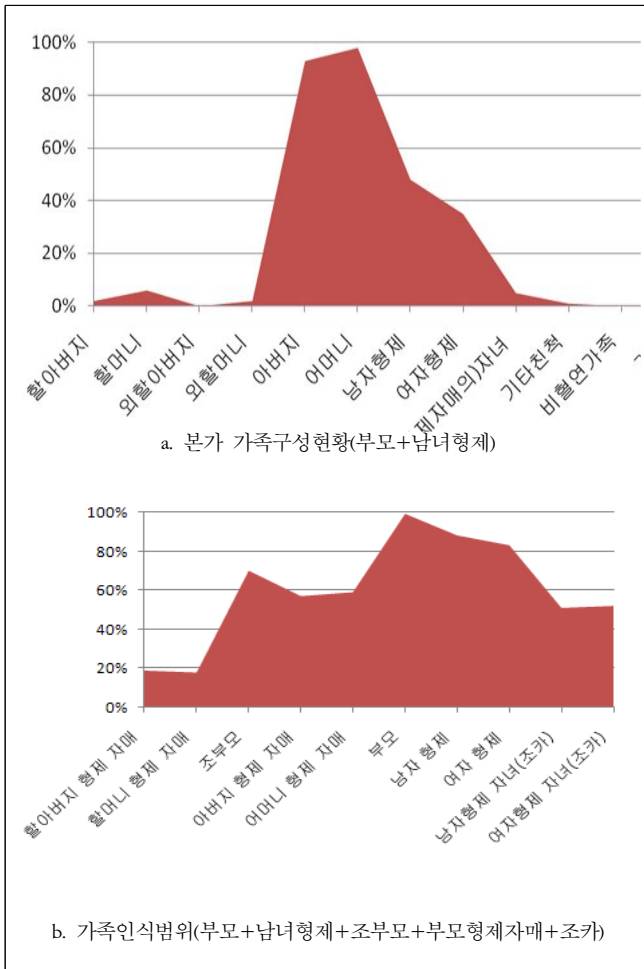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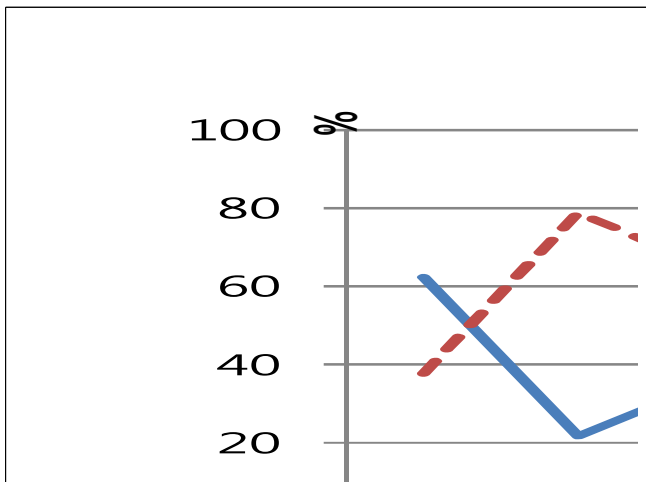


그림 7\_ 남녀 간 가족인식범위 비교



예상된다. 반대로 가족인식범위가 2~4명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응답비율이 훨씬 높고 가족인식범위가 넓어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 직계가족에 대한 가족적 인식에 있어 여학생이 더 친밀한 가족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교류관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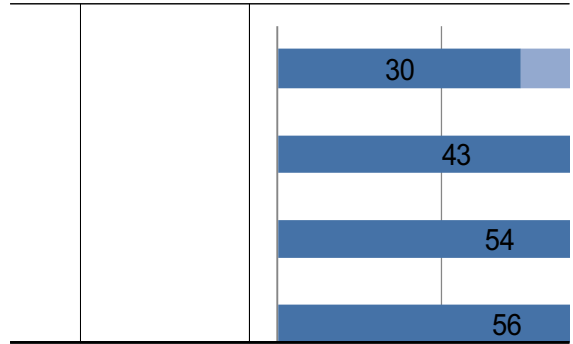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각 속성에 따른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표 4> 참조,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신적 교류대상으로, 기숙사 룸메이트(82%)를 많이 꼽았다. 또한 집에 대한 의미에서도 여학생은 집을 나를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분거기간에서, 여학생의 경우 1년 이하, 1~3년 사이의 단기간이 많은 데 비해, 남학생은 5년 이상 등 장기간이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포함되었기에 여학생보다 기간이 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문자교류나 방문교류에 있어서 훨씬 빈번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신교류 및 본가 방문의 절대 빈도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여학생(15.1%)이 남학생(4.2%)보다 문자 및 통화를 거의 매일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매주 방문하는 빈도도 여학생(12.6%)이 남학생(5.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아 가족 교류에 있어 여학생

이 더 적극적이다(도표 생략).

표 4\_ 남녀 간 분거기간 및 인식차이 비교(%)

항목		■ 남자	■ 여자
정신 교류 대상	가족	44	
	룸메이트	18	
	친구	41	
	기타	41	
집의 의미	집은 편해야 함	41	
	편리한 곳에 위치	50	
	집은 나를 보살핌	41	
	기타	41	
분거 기간	1년 미만	31	
	1~3년 미만	32	
	3~5년 미만	47	
	5년 이상	47	
통신 문자 교류	거의 매일	16	
	주 몇 회	48	
	월 몇 회	50	
	거의 안함	47	
방문 교류	거의 매주	16	
	월 1~2회	48	
	몇 개월에 1~2회	50	
	방학 때마다	47	
	연 1~2회	47	
	기타	47	



#### 4. 소결: 네트워크 거주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

##### 1) 네트워크 거주 유형과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

<표 5>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거주는 공간상으로 동일 시군구 내에 있는 단거리 네트워크 거주, 타 시군구의 중거리 네트워크 거주, 타 광역시에 위치하는 장거리 네트워크 거주, 해외거주에 의한 초장거리 네트워크 거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거리 네트워크 거주에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각자 핵가족을 이루면서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일정거리 안에서 사는 위성가족<sup>11)</sup>이 있다. 이들은 인근거리 형태로 교류가 빈번하고, 조부모 간호와 육아양육에 서로 도움을 줌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장모수당’제도<sup>12)</sup>가 있어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가족 간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중거리 네트워크 거주는 준근거(準近居)로서 내가 거주하는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2~3

1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김진균, 2009, “‘위성가족’ 고령화-저출산 풀 열쇠 되나”. 동아일보, 6월 25일자)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각자 핵가족을 이루면서도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일정 거리 안에 살면서 대가족의 장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위성가족(satellite famil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 함. 이는 일본의 인·근거의 개념과 비슷함.

12) 권세진, 2006. “新대가족 장·단점”. 세계일보 12월 3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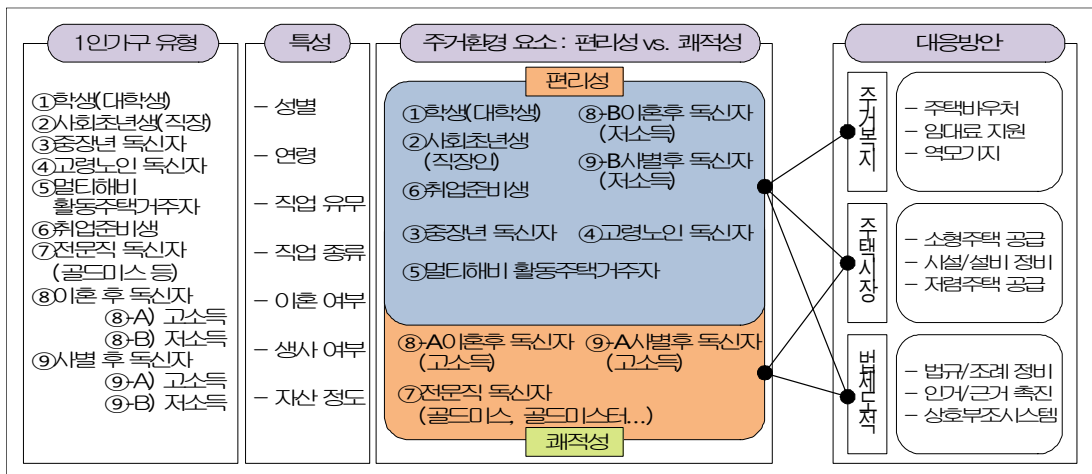
표 5\_ 네트워크 거주에 있어서 네트워크 길이에 따른 특성 비교

공간상 구분	가족 및 공간적 거주형태		특성
단거리 네트워크 거주 (동일 시군구)	위성가족	인거(隣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적 교류 빈번</li> <li>상호부조 가능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li> <li>이동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li> </ul>
		근거(近居)	
중거리 네트워크 거주 (타 시군구)	주말부부	준근거(準近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심지에서 자동차로 2~3시간 소요거리(국내)</li> <li>직접적 교류 보통</li> <li>교통 인프라 구축 중요</li> </ul>
장거리 네트워크 거주 (타 광역시)	주말부부, 원거리가족	원거(遠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심지에서 자동차로 3~5시간 소요거리(국내)</li> <li>직접적 교류 감소</li> <li>교통 인프라 구축 중요</li> </ul>
초장거리 네트워크 거주 (해외)	기러기가족	초원거(超遠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거주에 따른 분거형태(해외)</li> <li>직접적 교류 매우 드물</li> <li>통신 인프라 구축 중요</li> </ul>

시간 거리에서 교류하는 것이고, 장거리 네트워크 거주는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3~5시간 거리로 분류했다. 중장거리 네트워크 거주에는 주말부부 및 원거리가족이 있으며, 점차 거리에 따라 교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초장거리 네트워크 거주는 해외 거주에 따른 분거로 대표적으로 기러기 가족이 있으며, 교류가 매우 드물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 거주에 관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교류 및 상호부조를 촉진시키기 위해 교통인프라 및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근거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장거리 네트워크 거주를 단거리 네트워크 거주 형태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분산된 각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동일 생활권 내에서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단거리 네트워크 거주 실현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

그림 8\_1인가구의 유형 및 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네트워크 거주 관점에서 주택통계 관련 항목을 개발하여, 가족 및 주택통계의 기초자료로서 네트워크 거주 실태 및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 2) 1인가구의 유형 및 주거환경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인가구의 유형과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유무와 종류, 자산축적 정도 등에 따라 <그림 8>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선호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쾌적성의 관점에서 인구통계적 특성과 연계시켜 배치시키면 그림 중앙 상부의 편리성과 하부의 쾌적성으로 1인가구를 배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주택정책적 대응방안을 연계시킨 것이 오른쪽과 같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과 같이 편리성의 저렴주택을 선호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거복지 측면을 중심으로 주택시장과 법제도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골드미스, 사별 또는 이혼 고소득 독신자와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층에서는 주거복지보다는 이들의 수요에 부응한 주택시장 및 법제도적 정비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최근 급속한 1~2인가구의 확산에 따라 분거가족 현황을 주거정책적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대두되어, '네트워크 거주'라는 개념에서 대학생의 분거실태를 살펴보았다. 기숙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거주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학생은 '집세'를 이주 시 가장 크게 고려했다. 이는 전체 지출

중 등록금 다음으로 주거비가 큰 지출비용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비용마련 방법에서는 주로 혈연으로부터의 도움이 크며, 특히 주거비 지원비용이 등록금보다 더 높은 93.2%로, 주거비는 거의 부모에게 의존한다. 그런데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등 정신적 교류대상으로는 가족에 비해 지인 및 친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외박 시 지인의 집에서 머무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인이나 친구는 거리상 가까운 곳에 있어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므로 가족보다는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가족인식범위에 있어 실제 가족 구성원 수에 비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는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유대관계에 있어 혈연관계는 공간적 분거를 초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있어 남학생은 가족인식범위를 부모만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차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혈연관계까지 폭넓게 가족범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여학생은 2~4명(부모+형제자매+조부모)의 가족인식범위에서는 비율이 높으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남학생에 비해 가족의 인식범위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문자통화의 통신 및 방문교류에서도 남학생보다 더 적극적이다.

네트워크 거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각종 주택통계 집계에서 보이지 않는 가족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주에 관한 항목을 더 많이 개발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현재 통계청 사회조사<sup>3)</sup>의 가족부문에 있어서도 부모와 동거여부 및 방문빈도, 분거가족, 분거이유 및 기간 등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일방향적인 조사항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간적으로

13) 2010년 통계청 사회조사(<http://kostat.go.kr/survey/society>).

확산하는 분거가족을 주거 측면에서도 살펴보는, 즉 본가(거점주택)와 분거가족(활동주택)과의 공간적 분화현황 및 관계교류, 상호부조서비스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다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네트워크 거주상의 문제를 주거복지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본가에게 주거 보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는 등록금의 약 65%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부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는 심적 부담이, 그리고 지원하는 본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최근 지방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는 ‘유스하우징’, LH에서는 ‘대학생보급자리주택’을 공급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학 주변 다세대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저렴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소유자인 임대자가 적정 기준 없이 전월세 및 보증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학생이 부담하기 힘든 금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숙사 또한 임차료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기숙사나 임대자(대학생임대를 대상으로 하는)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적정 전월세 및 보증금 기준을 책정하여 대학생의 주거비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직접 주택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거 보조비에 의한 간접보조를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일반대학생들의 분거 시 자취 보증금의 경우, 한 번에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하기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기숙사도 한 학기분과 식비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생을 위해 저리로 ‘주거보증금 대출제(가칭)’를 만들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

가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구성원들의 다

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취업을 위해 분거하는 청년층, 맞벌이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가족, 해외에 따로 떨어져 사는 기러기가족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가족이 분화되어 분거가족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분거가족 중에서 본고에서는 학업을 위해 분거하고 있는 대학생만, 특히 K대 민자기숙사 거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하였기에 네트워크 거주 실상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의 과제로서 기숙사거주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자취 대학생, 준주택 거주 대학생 등 다양한 거주형태의 대학생의 네트워크 거주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2011.11.03].
- 건국대학교쿨하우스([http://kulhouse.konkuk.ac.kr/home/index\\_01.asp](http://kulhouse.konkuk.ac.kr/home/index_01.asp)).[2011.8.1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011.8.17].
- 곽인숙. 2003.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서울 : 한국가정관리학회. pp187-199
- 구동희. 2004. “도시탈출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1호. pp102-115.
- 권순택. 2005. “‘행복은 성적순’ 교육 풍토가 기러기 아빠 양산.. WP 3개면 보도”. 동아일보. 1월 10일자.
- 권세진. 2006. 新 대가족 장단점. 세계일보. 12월 31일자.
- 김진균. 2009. “‘위성가족’ 고령화-저출산 풀 열쇠 되나”. 동아일보. 2009년 6월 25일자.
- 김선희. 2007.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1권 제4호. pp171-189
- 김양희. 2004. “장기 분거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정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23.

- 김양호. 2009. “장기분거 가족에 대한 일 연구-기러기가족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3호. pp297-326.
- 김주현. 2010. “기러기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제41권 제4호. pp107-133
- 마크 펜·키니 젤리스. 2008. 마이크로트렌드 안전환 역. 서울 : 해냄.
- 박광모. 1983. “부모와 분거자녀간의 상호 연락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권. pp28-40.
- 박혜림. 2010. “혼인신고 일단은 살아보고 할래요”. 주간동아 제759호. pp50-51.
- 서울시 통계웹진 50호. (<http://stat.seoul.go.kr/jsp>).[2011.8.26].
- 엄명용. 2002. “장기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권 제2호. pp25-43.
- 우리 부부가 남편 방, 아내 방 따로 쓰는 이유 ‘각방’, 부부의 독립선언?. 미즈네일. (<http://www.miznaeil.com/index.asp>). [2011.8.18]
- 유희정·김세서리아. 2005. (21세기)한국가족: 문제와 대안-자녀 교육문제와 대책. 서울 : 경문사.
- 이두휴. 2008. “기러기아빠의 교육적 희망과 갈등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2권. pp21-46.
- 이현희. 2010. “자녀의 취침 및 학습 행위 패턴으로 본 기러기가족의 주생활 특성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1권 제3호. pp365-377.
- 조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신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제64권(겨울호). pp148-173.
- 조은숙. 2010. “기러기가족의 분거와 순차적 이민을 통한 재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변화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3호. pp91-115.
- 조현아. “대학생 月평균 생활비 42만 원...지난해보다 늘어”. 뉴시스. 3월 23일자.
- 차승은. 1999.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 및 분거 경험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2호.
- 최양숙. 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제18권 2호(여름호). pp37-65.
- \_\_\_\_\_. 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3호. pp67-97.
- 최정민. 2010. “멀티헤비테이션의 유형화 및 관련 주생활 라이프스타일 현황조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1권 제3호. pp41-52.
- 통계청 사회조사(<http://kostat.go.kr/survey/society>).[2011.9.2].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http://www.census.go.kr/>).[2011.11.3].
- 하미경·양성아·이승주·이효창. 2011. “대학생을 위한 소형주거 유형 및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제4호. pp163-173.
- 한유미. 2004.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4호. pp137-148.
- 金貞均. 2000. “少子化における子育てと「ネットワーク居住」-「非血縁・ネットワーク居住」への期待を寄せて”. 特集1 子育て就労・少子化と住宅 29号(春). pp33-38.
- 赤木 美苗・石坂 公一・武内 麻子. 2008. “ネットワーク居住における世帯属性性別の交流特性”.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第73巻, 624号. pp401-406.
- 近江 隆・金 貞均・小倉 啓太. 1995. “ネットワーク居住の成立形態と住機能の変化”.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468号. pp61-169.
- 平山 洋介. 2011. “親子近居と住宅政策”すまいろん 97号(冬). 日本 : 財団法人 住総住宅総合研究財団. pp34-37
- 大月・敏雄. 2011. “近居・隣居の選択的実現の可能性”すまいろん 97号(冬). pp2-3
- Haskey, John. 2006. “Living-apart-together in Britain: Context and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vol.2 no.1 pp37-48.
- Marjolijn, Van der Klis. 2008. “Continuity and Change in Commuter Partnerships: Avoiding or Postponing Family Migration”. *Netherland GeJournal* vol.71. pp223-247.
- Marjolijn, Van der Klis, and Karsten, L. 2005. “Dual Residences and the Meaning of Home”. *University of Amsterdam AMIDSt*. pp1-13.
- Roseneil, S. 2006. “On Not Living with a Partner: Unpicking Coupledness and Cohabitation”.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vol.11, no.3.
- Smith, Geoffrey C. 1998. “Residential Separation and Patterns of Interaction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2, no.3 pp368-384.
- Stedman, Richard C. 2006. “Understanding Place Attachment Among Second Home Owner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50, no.2. pp187-205.
- Strohm, Charles Q. · Seltzer, Judith A. · Cochran, Susan D. and Mays, Vickie M. 2009. “Living Apart Together Relationships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vol.21, no.7. pp177-214.

- 
- 논문 접수일: 2011. 9. 8
  - 심사 시작일: 2011.10.12
  - 심사 완료일: 2011.11.22

## A Study on the Network Residence of College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Keywords:** Network Residence, Separated Family, The Range of a Family,  
Invisible Family, College Student

The number of single or 2-person households is rapidly increasing in our society, corresponding to rapid changes in familial structures and lifestyles. Now it is thus common to have family members live separately. The concept of “network residence” was developed along with this new familial structur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 new concept of “network residence”, related characteristics, and future housing directions to accommodate these new familial characteristics. The major data collection method was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411 sing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We investigated their network residence conditions,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and opinions.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monthly cost of tuition, housing, and living was approximately 1.60 million Korean Won (19 million KRW annually). The majority of the expenses (93%) were paid by parents or close relatives. Many students (69%), however, had strong psychological bonding to friends or acquaintances rather than their parents. Interestingly, students’ perceived family boundary was far broader - about triple - than the actual family size. They considered their relatives not even living with them as their family members. This showed students had conceptual connections with their actual and extended family members. This is the evidence to show how the concept of network residence works for them.

###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네트워크 거주 실태분석

**주제어:** 네트워크 거주, 분거가족, 가족인식범위, 보이지 않는 가족, 대학생

급속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근래 우리나라도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것으로, 주거정책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가족관계를 본가와 분거가족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주’ 개념에서 고찰하였다. 대학기숙사 미혼 재학생 411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 네트워크 거주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 대학생이 지출하는 한 달 평균 지출액은 약 160만 원(연 1,900만 원)이며 이 중 주거비는 대부분(93%) 본가나 혈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 교류는 상당부분(69%)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받고 있어 경제적 지원 주체와 대조를 이룬다. 둘째, 가족 인식범위에 있어 실제 가족구성원 수에 비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는 3배 정도 훨씬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혈연에 대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는 훨씬 넓다. 이는 네트워크 거주가 혈연의 범위를 초월하여 실제 공간적으로 널리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